

“빠른 정보습득이 환경개선의 첩경”



윤병찬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이사

우리는 흔히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정보화 사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서슴없이 컴퓨터와 통신을 통해 정보를 수집, 가공, 활용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정보가 그 어떤 자원보다도 중요시되는 그러한 사회라고 이야기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얻기를 원하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를 중시하는 ‘Know-How’를 강조해 왔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어디에 있느냐’를 중요시하는 ‘Know-Where’가 점점 더 강조되어 가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Know-How’가 무시된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많은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고속도로라 말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정보의 전달과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정보들이 산재하여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정보라는 고기를 찾아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인터넷은 24시간 쉬는 시간 없이 동작을 하며 운영에 대한 책임자가 없이 자유로이 정해진 규칙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책임자가 없으므로 모두가 주인인 것이다.

이제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일이 적어졌다. 예전에는 환경법규가 개정되면 개정된 환경법규책을 구하고자 서점에 가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빠른 정보와 상호 연결 매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아직도 환경기술인들이 작업장에서 인터넷이 설치 되어있지 않아 정보습득 및 정보공유를 못하는 다소의 기술인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환경기술인이야말로 빠른 정보 습득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환경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한다.

예전에는 환경부에 질의를 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질의내용을 받아보았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질의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우리 환경기술인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사업장의 관리가 잘 되었나 체크하고 질의하여 개선해야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첩경이다. ◀